

“내가 최대한 즐길 수 있는 그림을 그리자!”
그것이 초보자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무리해서 어려운 그림을 그린다고
실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그만둘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은 그리는 즐거움을 알고, 체감하세요.

| 무로이 야스오,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 중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성숙한 신앙에 도달하는 사람도,
그런 성숙을 이룬 교회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 걸음씩 예수님을 닮아 나아갈 뿐,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 조금씩 더 배우고 알아갈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므로...” (시편 37:23 / 현대인의 성경)



구속의 시작(5)

김 종 철 전주동부교회 담임목사



지난 호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출 19:5~6).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백성들은 처음부터 언약을 어기는 삶을 삽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가시와 울무, 즉 고통이었습니다.

(삿 2:2)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삿 2:3)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라, 우상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계명과 율례가 아닌,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해야 하지만 이제 인간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삿 2:1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삿 17: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분열과 분쟁, 미움과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을 보면, 지파간의 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는 비참한 내분을 겪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생각은 ‘자기중심적’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타인중심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죄인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 2:7~8)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더위가 지나고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가는 하늘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새롭게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도록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시 8:5~6)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전주동부교회가 가파른 성장세를 자랑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지명도까지 갖게 된 계기는 김화일 목사가 제7대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부터이다

김화일 목사는 1974년 2월, 순천 세광교회에서 전주동부교회로 목회지를 옮겨왔다.

김 목사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빼어난 설교 전달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부임 이후 강단에서는 매주일 부흥회 수준의 열기가 뿜어져 나왔으며, 교회 전체에 새로운 활기가 감돌았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고, 이 때까지 잔존했던 과거의 어두웠던 그림자들까지 완전히 걷어지기 시작했다. 예배당 증축이 이루어졌고, 4년 동안 진행된 교육관 건축도 비로소 마무리됐다. 전임 임창희 목사 시절에 500명 선까지 올라간 교인 수는 어느새 다시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 시절을 보낸 성도들은 청중석이 모자라, 강대상까지 올라앉아 예배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주일 오전예배는 2부로 나눈 것으로도 부족해, 나중에는 3부까지 진행되기도 했다. 많은 일꾼들의 헌신 속에 주일학교 규모 역시 크게 확대됐다.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밖으로도 흘러나갔다. 1976년 평강교회에 이어 성민교회(1979년) 새순교회(1979년) 성지교회(1980년)가 잇달아 전주동부교회를

제7대 김화일 목사



통해 설립되었다. 이렇게 뛰기 시작한 국내선교의 맥은 이후 긴 세월 동안 이어졌다.

부흥사로서도 탁월한 명성을 지녀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던 김화일 목사는 1980년 10월 전주동부교회를 사임했다.

이후 미국으로 떠난 김 목사는 워싱턴에서 새한장로교회를 개척해 사역하면서, 한인교회협의 회장 워싱턴개혁장로신학교장 등을 지내며 미주한인교회 지도자로 활약했다. 2005년 세상을 떠난 김 목사의 장례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으로 거행됐다. | 정재영 기자



▲ 1975년 4월 1일 열린 김화일 목사의 위임식



롯데리아

대표 최 동 욱 집사 | 이 희 욱 집사

롯데리아 전 북 대 점 | 전주시 덕진구 명륜 4길 13 T. 063-283-6220

롯데리아 전 주 서 곡 점 |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523 T. 063-247-7227

롯데리아 롯데마트전주점 |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40 T. 063-241-7788



2025
새생명
축제

천하보다 귀한 태신자와 잃은양을 찾습니다.

2025.9.14 **주일** / 오전 10시

말씀주제 다시 생명으로, 다시 복음으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려내신지라 (딤후 1:10)

새생명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란 과연 무엇인지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잔치,
**2025년 전주동부교회 새생명축제가
9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만날 기회를
절대 잃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 안재우 소장

복화술이라는 특별한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쉽
게,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우리
에게 전달해주는 이야기꾼입니
다. 안 소장과 ‘깡여사’가 들려
줄 웃음 가득하면서도 눈물 맺
히는 스토리를 귀 기울여 들어
보세요.



● 메호라찬양선교단

때로는 소리로 표현하는 것보다 몸짓으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해와 감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이들의 아름다운 무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고등부 워십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춘들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싱그러운
지를 이들은 짧지만 강렬한 공연으로 보여줍니다.
젊은 예배자들이 연출하는 역동적인 장면들 앞에서 우린
열띤 호응을 멈출 수 없습니다.

● 사랑의 식탁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을 다한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정이 쌓이는 법이고 말 그대로 다정한 한 식
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 오찬의 시간까지 꼭 함께 하세요.

| 이승은 기자



아이들은 여름에 더 쑥쑥 자랍니다

교육부서 성경캠프 마무리



대학청년부 여름수련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대학청년부’라는 주제로 8.8.~9.까지 무주수련원에서 열렸다. 오랜만의 자체수련회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나종국 목사의 말씀집회와 부장 박승배 집사의 나무시계만들기 체험, 김성록 목사의 크리스천 청년의 데이트와 결혼 특강, 정세현 회장이 인도한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알차게 진행되었다. 중고등부는 8.1.~3.까지 전주대학교에서 진행된 ‘네임리스’

하계수련회에 참여했다. ‘승리’라는 주제 아래 찬양, 말씀, 팀 활동, 기도회 등으로 일정이 진행됐다. 수련회를 마친 후 고산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해 물놀이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주제로 8.7.~9.까지 모세오경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배우는 예배와 공과, 물놀이와 캠프파이어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 최조경 기자

“복음을 듣게 하세요!”

김충만 목사 초청 전도세미나



전주동부교회는 8월 10일 전주세향교회 김충만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주제의 전도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 목사는 자신의 간증과 함께 전도의 사명과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먼저 장수지역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오랜 불교 신자였던 자신이 25년

간 이어진 장모님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회자까지 된 과정,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 아내와 함께 19년 동안 기도하며 전도한 과정도 소개했다. 김 목사는 “전도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면서 “일단 전도대상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미영 기자

우리는 노래하고 춤추는 예배자

중고등부 53번째 ‘찬양의 밤’



전주동부교회 중고등부의 오랜 전통인 ‘찬양의 밤’ 행사가 53회째를 맞았다. 8월 23일 열린 이번 행사는 장수영 회장과 이하린 부회장 진행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경배와 찬양, 합창, 수어찬양, 워십댄스, 난타, 무언극, 블랙라이트 등 아름답고 역동적인 무대들이 장식했다.

| 이현미·정소연 기자



유방통에 대하여



전주동부교회의 전문 의료인들이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해 각 계절별 건강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튼튼히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40대 후반 여성 한 분이 외래에 방문하였다. 최근에 건강 검진으로 유방 촬영 및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1주 전부터 유방에 통증이 있어서 혹시 유방암이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찾아오셨다. 그러면 먼저 ‘일반적으로 유방암 환자가 유방통을 주요 증상으로 호소하는 경우는 5% 이하이며, 유방통은 대부분 여성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도 유방암이 여성암 1위이고 불안하시니까, 유방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해 보죠’라고 설명한 후 검사를 한다. 그러면서 여성호르몬과 유선 조직의 Heterogenous(비균일한 부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검사 결과가 유방암과 연관이 없다고 확인시켜주면 환자는 안심하고 돌아간다.

진료할 때 보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남성들의 병력 청취는 비교적 단순하다. 반면에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갑상선의 병이 많이 발생하고, 유방·자궁·난소 등에도 병이 나타난다. 게다가 여성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는 신체에 여러 질병 증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참 고생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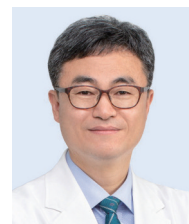
생리주기와 여성호르몬 변화에 따른 증상의 차이도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등 나이의 변화에 따라 여성호르몬의 변화와 이로 인한 증상의 차이도 있다. 또한 임신했을 때, 수유할 때, 그리고 갱년기나 산부인과 문제로 호르몬제를 사용할 때에도 증상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성 환자 병력을 청취할 때, 호르몬의 상태와 변화를 알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한다. 먼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후 “자녀들은 몇 명이세요?” “모유 수유했나요, 우유 수유했나요?” “큰애 또는 막내가 몇 살인가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은 언제이고, 규칙적인가요?” 등등을 물어본다. 답

변을 주의 깊게 들으며, 호소하는 증상과 현재 여성호르몬 상태와의 연관성 여부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한다. 가끔 폐경이 된 환자분에게 “서운하시겠어요”라고 말을 건네면 서운하다는 환자도 있지만, 생리주기도 없고 갱년기 증상도 없어 편하고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유방외과 외래를 찾는 환자들 중에 유방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제일 많다. 심하지 않은 유방통이나 생리주기 전 5일 이내의 유방통은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유방통은 주기적인 유방통과 비주기적인 유방통으로 나뉜다.

주기적인 유방통은 생리주기에 따라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방통증이 월경에 이르러 나타나거나, 월경 때 통증이 가장 심한 것을 말한다. 전체 유방통의 70%를 차지하며 폐경 바로 전에 심하고 폐경 후에 소실되기도 한다. 이때는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0대에도 호발하고 환자 중 22%에서는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증세가 사라지지만, 폐경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치료 방법으로는 비특이적 방법으로 견고한 브라지어를 착용하거나, 국소적 온열요법 또는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 식이요법으로 카페인과 지방질을 줄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달맞이꽃종자유라는 비호르몬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나졸과 같은 호르몬제나 유방암 때 사용하는 타목시펜과 같은 호르몬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비주기적인 유방통은 대개 한쪽에서만 발생하며, 유방의 외상방에 결절과 함께 나타난다. 30대의 여성에 호발하며 환자 중 50%에서는 자연 소멸한다. 유방염 증과 늑골 그리고 대상포진 등으로도 유방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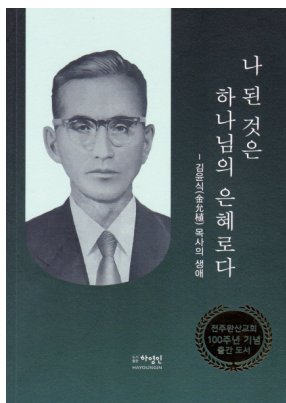


박영삼 장로 (박영삼세이유외과 원장)

BOOK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전주동부교회 초대 담임목사의 위대한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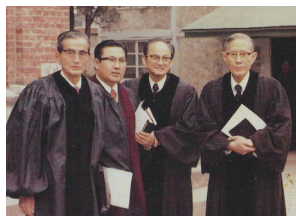
전주동부교회 초대 담임 목사인 김윤식 목사의 생애와 사역을 담은 전기가 발간됐다. 전주완산교회가 설립 100주년 기념도서로 올해 출간한 이 책의 제목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도서출판 하영인)이다.

김윤식 목사는 12세 때 무주읍교회에서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

였다. 이후 전주신학교를 나와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해방 이후의 혼란기까지 목회 현장을 지켰다.

그의 사역에는 미국남장로회 선교사이자 전주동부교회 초대 당회장인 보이얼(Timothy Booyell)이 깊이 관련되어있다. 1930년대 초, 무주 진안 장수지역을 맡아 사역하던 보이얼 선교사는 김윤식의 평양신학교 입학에 지원하는 등 신학 공부를 적극 권면하였다. 이 인연은 김윤식 목사가 목회자로 세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목회 철학과 열정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평양신학교 졸업 후 전도사로 시무하던 전주동부교회에서 초대목사로 목회(1937년 5월~1938년 11월)를 시작하였다. 이후 강진읍교회와 익산 고현교회를 거쳐 전주완산교회에서 사역하며, 예장통합 교단 총회장까지 지내고 원로목사로 은퇴하였다. 그는 무주읍교회 집사 시절부터 주일학교, 노동야학, 청년회 활동에 힘쓰며 금주·금연·절제 운동을 전개했다. 한편으로 문맹 퇴치와 미신 타파 운동을 주도하여 지역 사회 계몽과 의식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 강요와 창씨 개명 요구를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신앙 양심과 민족적 지조를 지켜 당시 교회와 사회에 귀감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기간에도 그는 교인들을 보호하며 목회를 이어갔다. 전주가 공산군 점령기에 들어갔을 때도 교회를 지켰고, 전봉구 장로의 순직과 같은 아픔 속에서도 흠어진 성도들을 모아 교회를 재건했다. 그렇게 20여 년간 전주완산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며 교세를 확장하고 성도들을 양육하여 신앙공동체를 굳건히 세웠다.



또한 그는 교단 분열 논의가 일어날 때마다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며 교단의 정체성을 수호하였다. 교정 사역에도 열정을 기울였다. 군산교도소에서 형

목으로 봉사하며,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 책은 한 목회자의 생애를 넘어,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서 신앙과 민족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지도자에 관한 기록이다. 특히 보이얼 선교사와의 관계는 한국선교의 열매가 뿌리내리는 과정을 잘 보여주며, 교회 부흥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 책은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 김형열 기자

<동녘>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 김 종 철

편집인 : 안 효 건

제작팀 : 정재영(팀장)

김형열 윤미영 이승은 이현미 정소연 최조경

발행처 : 전주동부교회 전도위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대로 88

전화 (063) 275-7760 홈페이지 www.cjdb.or.kr

<동녘> 제작을 후원하신 분들 (가나다순 / '25.08.26. 현재)

고정희 곽약훈 구길수 권선주 김광휘 김극명 김금자 김남기 김덕기 김미영 김병국 김숙희 김숙순 김은숙 김장중 김재현 김중후 김진숙 김효순 노명우 박선규 박영대 박영삼 박 웅 백성연 백은순 봉옥란 소화수 손주상 안한성 안효건 양이성 양화영 오윤자 원복주 은경옥 은희삼 이남심 이동주 이복구 이상우 이선민 이승은 이정숙 이정희 이준례 이현미 이홍승 이홍재 인정환 임선영 임 순 장희선 전봉권 정규윤 정소연 정숙자 정재영 진서금 진금자 채동명 최근수 최금미 최남열 최동욱 최명국 최범석 최병국 최순미 최완주 최원진 최조경 하기찬 한준석 홍영란 봉사위원회

전도편지 <동녘> 제작을 후원하실 분들은 1구좌당 5000원씩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계좌 > 카카오뱅크 3333-29-3293494 이현미

당신을 동넉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동산에 있던 선악과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시험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인간의 교만을 자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흐리게 하거나 "네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에게 수치심, 두려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족뒀을 지어 입히심으로 여전히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창 3:21).

오늘 우리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됩니다.

풍성한 가을, 주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길 바라며

오는 9월 14일(일) 오전 10시 전주동부교회 새생명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따뜻한 교제를 나누시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의 선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주동부교회는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전주 노회 소속으로, 1933년 10월 15일에 설립되어 9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공동체로서 정체성과, '학생교회'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다음세대 사역에 전념하여 큰 열매를 거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새벽예배		매 일 05:00		본당
주일 1부		일요일 09:00		본당
주일 2부		일요일 11:00		본당
찬양예배		일요일 14:3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19:30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20:30		본당
영유아부		일요일 11:00		교육관 1층
유치부		일요일 11:00		본당 지하 1층
유초등부		일요일 11:00		교육관 2층
중고등부		일요일 09:00		교육관 3층
대학청년부		일요일 13:00		본당 4층
목장모임		일요일 13:30		지정 장소

오시는 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88 (063) **275-7760**

<동넉>은 전주동부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jdb.or.kr)와 네이버카페(cafe.naver.com/dongnyeok) 페이스북(www.facebook.com/groups/dongnyeok)을 통해서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전도대상자 발송, 구독소감, 후원, 이벤트 등의 문의는 네이버카페와 이메일(dong_nyeok@naver.com)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